

## 「동아시아 불교와 원효의 화쟁사상」의 토론문

김복순(동국대 국사학과)

남동신선생님께서서는 원효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자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이 화쟁사상 연구는 동아시아불교에서 차지하는 원효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구성하신 논지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읍니다만 평소 의문으로 느꼈던 점들을 역사학의 입장에서 질문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생님께서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갖는 사상사적 의의를 현장의 신역불교 성립 이후 나타난 신, 구역불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것에서 찾고 계십니다. 즉 신, 구유식 간의 갈등에서는 구유식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유식의 학설을 광범하게 차용하였고, 일승, 삼승의 논쟁은 일성설의 우위 하에 오성설을 포섭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과 유, 중관과 유식의 논쟁은 양자를 화쟁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유식의 입장에서 신유식을, 일성설의 입장에서 오성설을 이해한 원효가 중관과 유식은 왜 화쟁의 방법을 취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역

불교의 입장에서 신역불교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그가 왜 중관과 유식을 화쟁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혹 선생님께서 대승기신론의 일심사상으로 양자를 화쟁하려고 보신 것은, 역시 구역불교의 입장에서 중관과 유식의 화쟁으로 보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원효를 '진나보살의 후신'이라는 후세의 평가는 그의 교학적 입장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진나로 대변되는 구유식의 입장에서 신유식에 맞선 보살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원효 당시의 신라불교가 구유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과의 관계에 있어 소강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신라의 불교교학체계가 그 기반을 구유식에 두고 선별적으로 당의 신유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효를 진나보살의 후신이라 표현한 최초의 예는 『삼국유사』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판비량론』의 저술 이후 현장을 극복한 원효에 대한 신라인들과 고려인들에 의한 평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로 선생님께서는 동아시아의 불교를 중국불교 일변도로 서술하고 계시는데, 이에 더하여 신라의 불교계와 중국불교계와의 관계성 등이 밝혀져야 좀 더 명확히 그의 화쟁사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원효를 현장과 법장 사이에 자리매김하여 그의 위치를 상정하고 중관과 유식의 화쟁을 성상윤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신데, 청량 징관의 경우 『화엄경현담』에서 원효를 唐初海東元曉法師라고 하면서 천태지의에 이어 四敎를 내세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효를 현장과 법장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보기에, 원효의 교학자체가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독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볼 때 현장과 법장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후세에 준 영향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상정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